

#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 복음의 중심을 향하여<sup>1)</sup>

-로마서 1:16-8:39 담화 분석-

이재현\*

## 1. 들어가면서

기독교 역사에서 로마서는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각각 다양한 신학적 모티브를 제공했다. 그레이돈 스나이더(Graydon F. Snyder)는 기독교 역사는 적어도 열여섯 개의 신학적 모티브를 로마서에서 찾아왔다고 한다: 믿음과 행위, 기독교, 교회와 국가,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 은혜와 인간의 자유의지(어거스틴, Augustine), 교회와 권력, 이신칭의(루터, Luther), 로마서의 역사적 의도, 종말론, 틀어진 하나님의 약속, 보편적 관용, 하나님의 말씀(바르트, Barth), 종말론적 실존(볼트만, Bultmann), 아가페(나이그렌, Nygren), 새 관점.<sup>2)</sup> 이런 주제들은 몇 가지 신학적 범주로 묶을 수 있는데 조셉 피츠마이어(J. A. Fitzmyer)는 다섯 가지로 구분했다. (1) 하나님에 대한 신학, (2) 기독교, (3) 성령론, (4) 인간론, (5) 신자의 생활.<sup>3)</sup>

---

\*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 강사, 신약학

- 1) 이 글은 필자의 학위 논문을 출간한 Jae Hyun Lee, *Paul's Gospel in Romans: A Discourse Analysis of Rom 1:16-8:39*, LBS 3 (Leiden: Brill, 2010)의 결론 부분을 요약한 것이다.
- 2) G. F. Snyder, "Major Motifs in the Interpretation of Paul's Letter to the Romans," S. E. McGinn, ed., *Celebrating Romans: Template for Pauline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2004), 42-63.
- 3) J. A. Fitzmyer, *Romans*, AB (New York: Doubleday, 1993), 103-172.

이런 종류의 신학적 모티프와 범주들은 기독교 교회의 독자들에게 중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로마서 저자인 바울의 관점에서 본다면 몇 가지 제기할 만한 의문들이 있다. 바울은 앞서 말한 모든 신학 주제들을 자신의 독자들이 발견하기를 의도하고 로마서를 썼던 것일까? 바울은 위에서 말한 주제들이 모두 똑같은 중요도를 가지고 읽혀지기를 기대했을까? 물론 아니다[‘메 게노이토’(μή γένοιτο)]. 왜냐하면 바울은 조직신학 교과서를 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신학적 내용을 열거하고 싶은 의도로 로마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신학 백과사전의 자료를 얻기 위해 로마서를 읽는 것은 바울의 본래 의도를 심각하게 곡해할 여지가 있으며,<sup>4)</sup>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모든 신학 내용들을 똑같이 중요하게 여기면서 서술했다고 믿는 것도 상당히 순진한 발상이다. 비록 위에서 언급한 신학 주제들이 다 중요한 것들이지만,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받는 독자의 상황에 따라 어떤 신학적 주제를 다른 것보다 상당히 강조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sup>5)</sup>

만일 그렇다면, 바울이 언급한 신학 주제들에서 강조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중심이 되는 신학 주제와 그렇지 않은 것들 사이의 상호 관계는 어떻게 규명하는가? 이것은 바울 서신과 관련된 두 가지 학적인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 한 가지는 해묵은 논쟁거리인 바울 신학의 중심에 대한 논쟁이고,<sup>6)</sup> 다른 한 가지는 로마서의 목적이다.<sup>7)</sup> 바울 신학의 중심과 로마서의 목적이 무엇이건 간에

4) 톰 슈레이너(T. R. Schreiner)는 이런 접근을 “바울 서신을 조직신학적 논문들로 읽는 것은 한 편지에서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한다. T. R. Schreiner, *Interpreting Pauline Epistles* (Grand Rapids: Baker book, 1990), 42.

5) J. C. Beker, *Paul, the Apostl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11-15.

6) 바울 신학의 중심에 대한 논쟁은 R. P. Martin, “Center of Paul’s Theology,” G. F. Hawthorne, R. P. Martin, and D. G. Reid, eds., *Dictionary of Paul and His Letter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3), 92-95; T. R. Schreiner, *Paul: Apostle of God’s Glory in Christ*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1), 16-19; L. M. McDonald and S. E. Porter, *Early Christianity and Its Sacred Literature* (Peabody: Hendrickson, 2000), 352-365를 보라.

더 중요한 문제는 로마서 본문에 나오는 저자의 의도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은 또한 어떤 부분이 중심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보조 부분인지 구분하는 것과 각 부분의 내용과 주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야기시킨다.

이러한 질문을 갖고 본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대두된 언어학적 담화 분석의 방법을 토대로 로마서 1:16-8:39에 나오는 바울 복음의 중심을 규명하려고 한다. 필자가 로마서 8장까지 국한시킨 것은 바울 복음의 중요 내용이 로마서 1:16-8:39에만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로마서 8:39과 9:1사이엔 큰 단락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마서 1:16-8:39은 로마서 9-11장의 내용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열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15장의 신자와 교회의 삶에 대한 바울의 논지의 신학적 근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을 가볍게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비록 로마서 1:16-8:39까지로 제한하지만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복음과 생각을 보다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2.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 복음의 중심을 향하여<sup>8)</sup>

### 2.1. 로마서 1:16-8:39에 나오는 바울 복음 전체 개관

---

7) 로마서 목적에 대한 개괄은 L. A. Jervis, *The Purpose of Romans*, JSNTSup 5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1), 11-28; J. A. Fitzmyer, *Romans*, 80-84; A. J. Guerra, *Romans and the Apologetic Tradition*, SNTSMS 8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22-42; J. C. Miller, "The Romans Debate: 1991-2001," *CurrBS* 9 (2001), 306-349를 보라.

8) 지면 관계상 이 결론이 도출되기까지의 과정인 방법론, 로마서 본문 설명과 언어학적 분석 자료들은 생략하기로 한다. 이에 대해서는 Jae Hyun Lee, *Paul's Gospel in Romans: A Discourse Analysis of Rom 1:16-8:39*, 25-86, 87-430, 445-546을 보라.

자신의 복음을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로마서 1:16-17에서, 바울은 복음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개한다. 이 구절을 통해 그는 복음과 관련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들을 소개한다. 한 요소는 복음은 인간들의 구원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관계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로마서 1:18-8:39에서 바울은 이 두 요소를 아우르는 구원을 설명하는데, 특별히 주목할 것은 그가 사용한 두 종류의 설명적 틀(descriptive framework)이다. 첫 번째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호 작용의 패러다임이다. 이것은 로마서 1:18-5:11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틀로 등장한다. 두 번째 틀은 옛 영역과 새 영역이라는 영역 대조이다. 이것은 로마서 5:12-8:39를 통해 구원을 설명하는 중요한 틀로 사용된다.<sup>9)</sup>

### 2.1.1. 상호 작용의 틀로 설명되는 구원: 로마서 1:18-5:11

이 설명적 틀의 가장 중심된 특징은 구원을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주거나 받거나 하는 상호 작용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 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시작 → 인간의 반응 → 인간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상호 작용 과정은 주로 동사들로 표현된다. 특별히 행위나 사건 과정을 의미하는 동사들, 인지나 감정적 정신 과정을 보여주는 동사들, 대화 과정을 드러내는 단어들로 표현된다. 실제로 로마서 1:18-5:11의 주요 동사들은 대부분 이 부류

9) 이 두 가지 설명적 틀은 논리적, 개념적인 것이다. 비록 본문의 문법적, 의미론적 단락 구분과 깊은 연관성이 있지만 실제적 단락 구분과 꼭 함께 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필자는 이런 상호 작용의 틀(롬 5:1-11)과 두 영역 대조의 틀(롬 5:12-21)이 모인 로마서 5장을 하나의 큰 단락 구분인 ‘섹션(section)’으로 보고 로마서를 분석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은 예수의 역할이라는 주제가 이 두 종류의 설명적 틀을 붙잡아 주어 통일성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보다 자세한 논증과 설명은 Jae Hyun Lee, *Paul's Gospel in Romans: A Discourse Analysis of Rom 1:16-8:39*, 291-308을 보라.

와 연관되어 나타난다. 이런 상호 작용의 틀은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다. 하나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상호 작용하는 패러다임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의 구원이 상호 작용하는 패러다임이다.

**(1) 인간의 죄인 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패러다임: 로마서 1:18-3:20**

이 패러다임의 기본 구조는 하나님이 창조물을 통해 자신의 신성을 보이시지만 모든 인간이 거절하는 과정, 그런 인간의 반응에 진노와 심판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반응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거절은 행위나 태도, 인지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데(참조, 롬 1:21-23),<sup>10)</sup> 이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도 인간의 행위 영역과 인지 영역에 각각 대응한다.<sup>11)</sup> 바울은 이 패러다임으로 인간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다.

첫 번째 통찰력은 이 패러다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두 차원의 관계성이 있다고 말한다. 그 하나는 법정적 차원이다. 이것은 주로 ‘디크’(δικ-) 어휘들[예, ‘디카이오스’(δικαιος, 의로운); ‘디카이오오’(δικαιόω, 의롭게 하다. 등등)]이나 심판[‘크리노’(κρίνω, 심판, 판단

10) (1) 행위 혹은 태도적 영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감사치 않는다(롬 1:21a, b, 23), (2) 인지적 영역: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둡게 되었고(롬 1:21c, d),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우준하게 되었다(롬 1:22). 바울은 이것을 교차 대구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A. 인간의 고의적 행위[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치 않음(예배의 문맥), 롬 1:21a, b]

B. 인간의 부정적 인지 영역(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둡게 됨, 롬 1:21c, d)

B' 인간의 부정적 인지 영역(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우준하게 됨, 롬 1:22)

A' 인간의 고의적 행위(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우상의 것으로 바꿈, 롬 1:23).

11) (1) 로마서 1:24-27, 행위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2) 로마서 1:28-32, 인지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다); ‘크리마’(κρίμα, 심판)와 멸망에 관련된 단어(‘아폴뤼미’(ἀπόλλυμι, 멸망시키다.))들의 사용에서 나타난다.

이 경우, 하나님은 심판자로 그리고 인간은 자신들의 죄로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로 묘사된다. 바울에 의하면 인간의 죄인 됨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와 심판은 피할 길이 없으며, 심지어 율법도 이런 법정적 차원에 대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차원은 관계적인 것이다.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의 패러다임에서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엑크뜨로이’(ἐχθροί, 롬 5:10) 관계에 있다. 그 결과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서 화평이란 없으며(참조, 롬 5:2), 오직 인간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진노로 묘사되는 관계가 전부이다.

인간의 죄인 됨과 하나님의 진노의 패러다임이 주는 두 번째 통찰력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이런 패러다임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참조, 롬 1:18-2:5; 3:9),<sup>12)</sup> 그들

12) 많은 주석가들은 로마서 1:18-32의 내용을 이방인의 죄를 묘사하는 것으로, 그리고 로마서 2:1-5는 유대인에 대한 것으로 이해한다(예를 들어 W. Sanday and A. C. Headlam,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ICC (Edinburgh: T&T. Clark, 1902), 54; C. H. Dodd, *The Epistle of Paul to the Romans*, MNTC (London: Hodder & Stoughton, 1932), 113; C. E. B. Cranfield,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ICC (Edinburgh: T&T Clark, 1975), 136-140; E. Käsemann, *Commentary on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1980), 52-54; J. D. G. Dunn, *Romans 1-8*, WBC (Waco: Word, 1988), 78; J. A. Fitzmyer, *Romans*, 297; D. J.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6), 125-127; T. R. Schreiner, *Romans*, BECNT (Grand Rapids: Baker, 1998), 103; S. J. Gathercole, *Where is Boasting?* (Grand Rapids: Eerdmans, 2002), 198 등]. 하지만 로마서 1:18-2:5절의 대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으로 볼 여러 근거들이 있다. 먼저, 바울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처음 언급한 로마서 1:18에 나오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안뜨로폰’(ἀνθρώπων))이 이방인에게만 해당한다고 볼 증거는 없다. 오히려 이것을 모든 인류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리고 계속되는 바울의 논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모든 인류에서 이방인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단서(예를 들어, 인칭 대명사를 통한 변화 등등)는 없다. 또한 로마서 2:1-5의 내용이 솔로몬의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참조, 롬 2:12; 3:19-20). 흥미롭게도 바울은 인간의 죄인 됨과 하나님의 심판의 패러다임을 다룰 때, 인간 편의 모습을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한다. 우선 로마서 1:18-32에서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을 말한다. 그 후 로마서 2:1-5에서 도덕주의자들에 대한 예를 들고, 로마서 2:6부터 다시 모든 인류로 그 범위를 확장시킨다. 바울은 로마서 2:12에서 율법을 언급하여 유대인의 죄인 됨에 대한 예를 들기 시작한다. 비록 그가 로마서 2:12-3:20에서 유대인의 죄된 모습을 다루지만, 그의 주된 관심은 단순히 유대인의 죄악 됨을 설명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그의 주된 초점은 모세 율법이 구원의 도구가 되지 못한다는 것과 유대인도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패러다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데 있다. 이런 두 초점은 다시 로마서 3:19-20에서 모든 인류의 죄인 됨을 확정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여기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유대인이 자신들의 육신적 한계[‘사르스’(σάρξ)]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없어 심판을 받는다면, 율법이 없어 하나님의 뜻조차 모르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것을 바울이 논증하고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18-3:20에서 죄인된

---

지혜서의 내용과 유사하기에 유대인을 지칭한다고 하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예를 들어 더글라스 무(Douglass J. Moo)는 로마서 2:4절과 지혜서 11:23과의 유사성을 통해서 로마서 2:1-5가 유대인의 죄악 됨을 말한다고 주장한다(D. J.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128, 133). 하지만 지혜서 11:23은 유대인을 향한 것이 아닌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대한 것이다. 결정적으로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로마서 2:1의 접속사 “디오”(διό)는 이방인을 다루는 로마서 1:18-32와 유대인을 다루는 로마서 2:1-5사이의 논리적 연결이 매우 부적절함을 보여준다. 오히려 로마서 1:18-2:5는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로마서 1:18-32는 보다 일반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로마서 2:1-5는 바울의 독자를 겨냥한 도덕주의자(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를 향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보다 자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Jae Hyun Lee, *Paul's Gospel in Romans: A Discourse Analysis of Rom 1:16-8:39*, 130-133을 보라.

인간과 하나님의 진노의 패러다임을 설명할 때, 인간 편의 상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해가며 이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죄인 됨 → 일반적인 도덕주의자의 위선 → 모든 인간의 죄인 됨 → 유대인의 죄인 됨 → 모든 인간의 죄인 됨.

세 번째 통찰력은 이런 패러다임에서 나타나는 상호 작용 과정은 시간적, 공간적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적인 것과 관련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 작용은 과거와 현재, 미래라는 시간적 연속성을 가진 것으로 설명한다. 즉, 인간들의 과거와 현재의 죄가 하나님의 과거, 현재적 심판을 야기시킨다(참조, 롬 1:18-32). 더 나아가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의 현재적 모습은 하나님의 미래적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롬 2:3-5). 공간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바울은 인간들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 사이의 상호 작용의 결과는 단순히 인간 개개인의 차원만이 아닌 모든 피조물의 영역까지 미친다고 말한다(참조, 롬 8:22).

결론적으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의 상호 작용 패러다임은 바울이 인간의 문제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틀로서 사용된다. 이 패러다임의 핵심 과정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대한 인간의 거절로 표현되는 죄악 됨이다. 인간의 죄악 됨은 하나님과의 법정, 관계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데,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반응을 진노와 심판으로 묘사한다. 하나님의 진노는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며, 공간적으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까지 이른다.

## (2)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상호 작용: 로마서 3:21-5:11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 작용의 두 번째 패러다임은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의 구원이다. 이 패러다임에서 하나님은 구원 과정을 주도해 가는 분으로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으로 설명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구원 과정의 중심에 두셨으며, 그 예수

에 대한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나타난다(롬 3:21-26). 앞서 설명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의 패러다임처럼 이 구원의 패러다임도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 작용이라는 기본적인 형태를 공유하지만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차이점과 특징들이 있다.

첫 번째 차이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 작용에서 그 결과 차이이다. 위에서 말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라는 옛 패러다임과 하나님의 구원의 새 패러다임은 공통적으로 법정, 관계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옛 패러다임에서 법정적 차원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지만, 새 패러다임에서는 죄용서와 의롭게 됨[‘디카이오쉬네’(δικαιοσύνη)]이 새로이 등장하는 하나님의 반응이다. 한편, 관계적 차원에서는 인간과 하나님의 원수 됨이 옛 패러다임의 기본적인 상태였다면, 새 패러다임에서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신자와 하나님이 평화의 관계 속에 있다고 말한다(롬 5:1, 10-11). 그러므로 구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결과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라는 옛 패러다임에 대한 반전이나 해결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새 패러다임에서 구원 과정을 경험하는 대상들이 다르다는 것이다. 옛 패러다임이든 새 패러다임이든 하나님의 상호 작용의 대상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모든 인간이다. 하지만 옛 패러다임과는 달리, 새 패러다임에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비록 하나님의 구원 과정의 시작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참조, 롬 3:22).

구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특징은 옛 패러다임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공간적 차원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적으로 신자의 믿음은 하나님 구원의 현재적 차원[예를 들어, 칭의(참조, 롬 5:1, 9)]을 경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미래적 상황까지 연결되어 있다[‘소페소메따’(σωθησόμεθα), 롬 5:9, 10]. 공간적으로 피조물도 인간의 믿음과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새 패러다임 결과를 경험

하게 될 것이다(참조, 롬 8:19-21). 하지만 이것은 현재 상황이 아닌 미래 상황과 연결되며, 두 영역의 설명 틀과 더욱 밀접히 관련되어 등장한다.

네 번째 차이점은 새 패러다임에서 보이는 신적 주도권과 인간의 믿음에 대한 강한 강조이다. 옛 상호 작용 패러다임의 초점은 인간의 죄악 됨과 하나님의 진노의 반응에 있었다. 그 중, 바울은 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인간의 죄악 됨을 설명하여 그것이 인간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여주었다. 하지만 구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구원에서 그 결과의 그 상세한 모습보다 하나님의 주도권과 인간의 반응을 더 많이 강조한 인상을 준다. 먼저 인간의 믿음과 관련해서, 바울은 로마서 3:21-26에서 믿음을 하나님의 주도권적 구원의 시작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반응으로 소개하고, 그것을 통해 의롭게 됨을 보여준다. 그리고 로마서 3:27-31에서 믿음의 중요성을 다시 언급하고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하나님의 선행(先行)에 대한 인간의 믿음의 반응이 구원을 경험케 하는 핵심임을 재차 강조한다<sup>13)</sup>.

13) 여기서 필자는 바울 신학의 최근 논쟁거리인 ‘피스티스 예수 그리스투’(πίστι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이해에서 목적 소격(“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에 대해 몇 가지 내적, 외적인 증거들이 있다. 먼저, 사본학적 외적 증거가 목적격 이해를 방증한다. 로마서 3:22는 1:17과 더불어 ‘피스티스 예수 그리스투’ 문제의 중요한 구절인데, 이 구절을 담고 있는 현존하는 사본 중 네 번째로 오래된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소격 구조를 대격 구조로 바꾸어 말하고 있다. 즉,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디아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투’(διὰ πίστεω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 대신에 ‘디아 피스테오스 엔 크리스토 예수’(διὰ πίστεως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대 서기관들도 이 구절에 대한 오해의 여지를 인식했고, 의도적으로 수정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이 바르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S. E. Porter, “The Rhetorical Scribe: Textual Variants in Romans and Their Possible Rhetorical Purpose,” S. E. Porter and D. L. Stamps, eds., *Rhetorical Criticism and the Bible*, JSNTSup 19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2), 417). 내적인 여러 증거도 목적격 이해를 방증한다. 주격 소격 이해(‘예수의 믿음/신실성’)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본 전제는 율법과 믿음에 관련된 바울의 구원 논쟁의 핵심은 신적 주도권과 인간적 주도권 사이의 대조라고 보는 것이다. 즉, 바울이 논하려는 것은

한편 믿음의 반응의 전제가 되는 구원의 신적 선행 작업도 새 패러다임의 주된 관심 중 하나이다. 이 신적 선행 작업의 핵심은 하나님

---

인간의 믿음과 행위의 대조가 아닌, 인간의 행위와 예수가 행한 어떤 것 사이의 대조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가 행한 어떤 것을 ‘피스티스’(πίστις, 믿음, 신실성)라고 표현했다는 것이다(예를 들어 R. N. Longenecker, *Paul, Apostle of Liberty* (New York: Harper & Row, 1964), 149-152; G. Howard, “On the ‘Faith of Christ’,” *HTR* 60 (1967), 459-465; G. Howard, “The ‘Faith of Christ’,” *ExpTim* 85 (1973-1974), 212-215; D. W. Robinson, “Faith of Jesus Christ-A New Testament Debate,” *RTR* 29 (1970), 71-81; G. M. Taylor, “The Function of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in Galatians,” *JBL* 85 (1966), 58-76; S. K. Williams, “Again Pistis Christou,” *CBQ* 49 (1987), 431-447; R. B. Hays, *Echoes of Scripture in the Letters of Pau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156-161; R. H. Hays, “ΠΙΣΤΙΣ and Pauline Christology: What Is at Stake?,” E. E. Johnson and D. M. Hay, eds., *Pauline Theology. Volume IV: Looking Back, Pressing on* (Atlanta: Scholars Press, 1997), 35-60; L. E. Keck, “‘Jesus’ in Romans,” *JBL* 108 (1989), 452-457; M. D. Hooker, “ΠΙΣΤΙΣ ΧΡΙΣΤΟΥ,” *NTS* 35 (1989), 321-342; B. W. Longenecker, “πίστις in Romans 3:25: Neglected Evidence for the ‘Faithfulness of Christ’?,” *NTS* 39 (1993), 478-480 등등). 하지만, 그들의 이해와 달리 로마서 3:21-26에서 예수는 문법적, 논리적 주어로 나오지 않는다. 실제로, 로마서 3:21-26에서 하나님과 인간은 문법적 혹은 논리적 주어로 등장하지만, ‘피스티스’라는 단어 외에는 한 번도 예수가 어떤 과정이나 행위의 주체로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가 논리적, 문법적 주어로 표현되는 로마서 5장에서도 바울은 예수의 순종을 ‘피스티스’라는 단어를 써서 설명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계속되는 바울의 설명에서 ‘피스티스’는 인간의 행위와 예수의 순종 사이의 대조가 아닌, 인간의 행위와 믿는 것이 대조되는 문맥 안에서만 등장한다(예, 롬 4:2-3). 그러므로 로마서 3:22에 나오는 ‘피스티스 예수 그리스투’(πίστις Ἰησοῦ Χριστοῦ)의 표현을 목적 소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적 소격에 대한 자세한 변호는 J. D. G. Dunn, “Once More, ΠΙΣΤΙΣ ΧΡΙΣΤΟΥ,” E. E. Johnson and D. M. Hay, eds., *Pauline Theology. Volume IV: Looking Back, Pressing on* (Atlanta: Scholars Press, 1997), 61-81; B. Byrne, *Romans*, Sacra Pagina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6), 124-125, 130; T. R. Schreiner, *Romans*, 181-186; C. E. B. Cranfield, “On th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Question,” *On Romans and Other New Testament Essays* (Edinburgh: T&T Clark, 1998), 81-97; R. B. Matlock, “Detheologizing the ΠΙΣΤΙΣ ΧΡΙΣΤΟΥ Debate: Cautionary Remarks from a Lexical Semantic Perspective,” *NovT* 42 (2000), 1-23; Jae Hyun Lee, “Against Richard B. Hays’s ‘Faith of Jesus Christ’,” *JGRChJ* 5 (2008), 51-80을 보라.

자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세우시는 과정이다.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3:21-26과 5:6-10의 두 부분에서 설명한다. 하지만 각각의 관심사와 초점이 다르다. 먼저 로마서 3:21-26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구원 과정을 설명한다. 이것은 구원 과정을 표현하고 있는 절이나 문장의 모든 논리, 문법 주어가 하나님인 것에서 잘 드러난다. 반면, 로마서 5:6-10의 경우는 사뭇 다르다. 비록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과 희생을 중심으로 한 구원 과정의 주관자로 묘사되지만, 그 중요성은 상당히 낮게 표현된다. 예를 들어, 로마서 5:1-11에서는 로마서 5:8 외에는 하나님이 주절의 문법 주어로 등장하지 않는다. 심지어 로마서 5:8에서도 하나님은 문장 맨 뒤에 자리 잡아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낮게 표현되어 있다.<sup>14)</sup> 이것은 로마서 3:21-26의 경우와 상당히 다른 것이다. 로마서 5:6-10에서는 예수는 문법적, 논리적 주어로 두 번 등장한다(롬 5:6, 8). 이는 예수의 죽음과 관련된 것으로 구원 과정을 설명한 로마서 3:21-26에 비해서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이것은 예수의 자발적 순종의 희생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 표현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 예수의 희생적 죽음은 신적인 선행 과정의 핵심이지만, 바울은 같은 과정을 로마서 3:21-26에서는 하나님의 역할에, 로마서 5:6-10에서는 예수의 역할에 초점을 두어 설명한 것 같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 작용에서 구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예수의 희생을 통한 신적 선행 작업과 그것에 반응하는 인간의 믿음을 상당히 강조한다. 이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옛 패러다임의 반응인 심판과 진노를 거두고 예수를 통한 구원의 새로운 상호 작용을 시작했다고 강조한 것이다. 반면, 인간과 관련해서는 거절과 불순종이 아닌 구원의 신적 선행 과정에 대한 믿음의 응답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구원의 패러다임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 작용의 결과는 법정적 면에서 진노와 심판이 칭의로 바뀌게 되고,

14) S. E. Porter,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BLG 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296.

관계 면에서 원수 된 관계가 화목의 관계로 바뀌는 것을 포함한다. 구원에 관한 이 두 차원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적 연장선에 있으며 공간적으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에게 미친다고 바울은 설명한다.

### 2.1.2. 두 영역의 대조로 설명되는 구원: 로마서 5:12-8:39

#### (1) 상호 작용 틀과 두 영역 틀 사이의 관계성

상호 작용의 틀과 비교해서 두 영역의 틀은 적어도 두 가지의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첫 번째는 상호 작용과 두 영역은 구원을 설명하는데 다른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상호 작용의 틀 안에서 구원은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반응이나 보상을 의미한다. 하지만 두 영역의 틀 안에서 구원이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지배하는 다른 영역으로 옮겨짐을 의미한다. 두 번째 차이점은 상호 작용의 틀과 달리 두 영역 틀은 각각의 영역에 있는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는 데 많은 초점을 둔다는 점이다. 상호 작용의 틀에서는 ‘행위’나 ‘인지 작용’ 등과 관련된 인간과 하나님의 상호 작용이나 그 결과에 초점을 둔다. 하지만 두 영역 틀에서는 옛 영역과 새 영역에 속한 사람들의 상황이나 상태 묘사에 많이 집중한다. 이것은 여러 의미 영역의 단어들로 표현되는데, 특히 존재나 되어짐을 의미하는 단어들[‘에이미’(εἶμι, 존재하다); ‘기노마이’(γίνομαι, 되다)]나 통제와 관련된 단어들[‘퀴리우오’(κυριεύω)와 ‘바실류오’(βασιλεύεω, 다스리다); ‘휘파쿠오’(ὑπακούω, 순종하다) 등등], 삶과 죽음에 관련된 단어들[‘조에’(ζωή, 생명); ‘취자오’(συζάω, 함께 살다); ‘네크로스’(νεκρός)와 ‘따나토스’(θάνατος, 죽음); ‘아포뜨네스코’(ἀποθνήσκω, 죽다 등등)]은 두 영역의 상태를 설명하는 중요한 것으로 자주 반복된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점에도 상호 작용의 틀과 두 영역의 틀은 서로 모순되거나 상충되지 않는다. 우선, 이 두 틀 속에서 하나님은 신자에게

구원을 경험케 하는 주체로 등장한다. 그리고 이 두 틀은 공통적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본문에 나오는 단어들의 의미 영역을 분석하면, 옛 영역과 상호 작용의 옛 패러다임은 서로 연관성이 있고, 새 영역은 새로운 구원의 패러다임과 관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옛 영역과 상호 작용의 옛 패러다임은 죄와 심판, 적대감(참조, 롬 5:10; 8:6-7)의 단어들로 인간의 모습을 설명한다.

한편, 새 영역과 상호 작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의로움[‘디크-’ 어휘들, ‘디카이오쉬네’(δικαιοσύνη)나 ‘디카이오오’(δικαιόω)]이나 은혜[‘카리스’(χάρις)], 평화[‘에이레네’(εἰρήνη), 롬 2:10; 5:1; 8:6-7] 등을 사용해서 구원을 설명한다. 특히 새 영역과 상호 작용의 새 패러다임에서 구원이 법정적 측면(‘디크-’ 어휘들)과 관계적인 측면(예, ‘에이레네’)을 함께 아우르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도 공통적이다. 그러므로 상호 작용과 두 영역이라는 설명 틀은 서로 상충 개념이 아닌, 구원을 설명하는 데 서로 상보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상호 작용의 틀은 구원에 있어 인간과 하나님의 상호 작용 과정과 결과를 잘 보여주고, 두 영역의 틀은 각각의 상호 작용 패러다임 속에 있는 인간들의 상태를 잘 묘사한다. 더 나아가 구원의 새 영역은 상호 작용의 새 패러다임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다.

## (2) 두 영역 설명 틀의 몇 가지 특징

### ① 수사학적 대조

로마서 5:12-8:39에 나오는 두 영역의 설명 틀은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그 한 가지는 수사학적 대조나 비교를 중요한 논증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 논증 방법의 핵심은 옛 영역과 새 영역의 대조다. 로마서 5:12-8:39는 크게 다섯 부분에 걸쳐 이런 수사학적 대조를 보인다.

첫 번째 수사학적 대조는 로마서 5:12-21에 있다. 여기서의 초점은 두 영역의 시작점이 되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대조이다. 옛 영역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된다. 그의 반역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해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롬 5:12). 아담 이후 죄와 사망은 옛 영역을 다스리는 지배 세력이 되었고, 아무도 이 둘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심지어 모세 율법도 이 두 세력 안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이는 율법의 주된 기능은 단지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영역의 모습은 옛 영역과 판이한 차이를 보인다. 새 영역의 시작은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시작되며, 그 결과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미친다(롬 5:17). 더 나아가 새 영역의 주된 세력은 죄와 사망이 아닌 은혜이며, 이 은혜가 신자에게 영생을 주는 것으로 묘사된다(롬 5:21).

로마서 5:12-21의 수사학적 대조는 바울의 전체 설명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하나는 로마서 5:12-21에서 보이는 옛 영역과 새 영역의 대조는 상호 작용의 옛 패러다임과 새 패러다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잘 묘사해 주는 역할을 한다. 다른 하나는 로마서 5:12-21에서 등장하는 전체적 수사학적 대조의 모습과 그 요소들은<sup>15)</sup> 바울이 로마서 6-8장의 논증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한다. 이런 면에서 로마서 5:12-21은 두 영역의 상호 작용이라는 설명 틀로 구원을 보다 입체적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는 로마서 6-8장의 청사진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나오는 옛 영역과 새 영역의 수사학적 대조는 로마서 6:1-14에 있다. 이 부분의 주제는 옛 영역의 주된 세력인 죄와 새 영역에 들어와 있는 신자 사이의 관계성이다. 여기서 바울은 옛 영역의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새 영역으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으로 설명하며, 이 개념 이해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세례의 이미지를 사용

15) 죄와 은혜라는 두 영역의 주된 세력들, 율법, 사망, 예수의 역할, 두 영역 안에서의 상태, 칭의, 생명 등등.

한다. 즉, 신자는 이전에는 옛 영역 안에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 구원의 새 영역 안으로 옮겨진 것이 신자의 현재 상태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자는 과거 지배 세력이었던 죄에서 해방되었기에 더는 그 죄가 자신을 지배하는 것을 허락치 말라고 명령한다(롬 6:12).

세 번째로 나오는 수사학적 대조는 로마서 6:15-23에 나오는 두 영역의 대조이다. 이 부분에서 바울은 노예 상태 이미지로 누구든지 자신이 주인으로 섬기는 자의 종이 된다는 원리에 따라 수사학적 대조를 시작한다. 이 원리를 통해 신자는 이전 주인이었던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다시 그 죄에게 순종하여 종노릇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역설한다. 특히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적 대조는 두 영역 안에서 신자의 상태를 설명하는 요소로 사용된다.

네 번째 수사학적 대조는 로마서 7:1-6에 있다. 이 부분의 주제는 율법과 두 영역 사이의 관계성이다. 로마서 6:15절에서 바울은 문답식 대화법(*diatribe*)으로 율법 아래 있지 않은 신자의 삶을 다루기 시작하는데, 우선 로마서 6:16-23에서 새 영역 안에 있는 신자의 삶에 대해 논하고, 두 영역과 율법 사이의 관계성은 로마서 7:1-6에서 다룬다. 이런 면에서 로마서 7:1-6은 6:15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두 번째 답변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로마서 7:1-6에서 바울은 율법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결혼이라는 독특한 이미지를 사용하는데, 그 기본 원리는 법[‘노모스’(νόμος)]은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만일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결혼 법에서 자유하게 되고,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적용해서 신자들은 옛 배우자인 죄에서 죽었기에 옛 결혼 관계를 지배하던 법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말한다.<sup>16)</sup> 그리고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예수와 결혼하게 되었고, 새로

16) 로마서 7:1-6에 나오는 신자의 옛 남편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어떤 학자들은 율법이나(F. F. Bruce, *Romans*, TNTC (Grand Rapids: Eerdmans, 1983), 137; I. H. Marshall, *New Testament Theology*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운 결혼 관계를 지배하는 세력 아래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새로운 지배 세력이 바로 성령이라고 말한다(롬 7:6).

다섯 번째로 나타나는 옛 영역과 새 영역에 대한 수사학적 대조는 로마서 7:7-8:39에 있다. 이 부분의 주된 주제는 율법과 성령의 위치와 역할과 관련해서 두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상황을 대조하는 것이다. 로마서 7:7-25에 나오는 옛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육신적 한계(‘사룩스’) 때문에 죄의 세력을 이길 힘이 없다.<sup>17)</sup> 율법은 선한 것으로

2004), 318], 옛 자아(W. Sanday and A. C. Headlam,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172), 그리스도의 죽음(J. D. Earnshaw, “Reconsidering Paul’s Marriage Analogy in Romans 7:1-4,” *NTS* 40 (1994), 70-72] 등등의 의견을 제시한다. 하지만 필자는 로마서 7:4의 적용에서 암시되는 전 남편을 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로마서 7:1-3의 원리에 의하면 율법은 결혼의 배우자가 아닌 결혼을 지배하는 원리로 나온다. 그리고 바울의 이전 논증에 의하면, 신자가 새 영역으로 옮겨지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참조, 롬 6:3-11). 따라서 이전 결혼 상태를 지배하던 율법에서의 해방도 죄에 대한 신자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신자의 옛 남편은 죄로 봐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Jae Hyun Lee, *Paul’s Gospel in Romans: A Discourse Analysis of Rom 1:16-8:39*, 337-339를 보라.

- 17) 로마서 7:7-25에 나오는 ‘나’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었다. 크게 두 가지로 논쟁의 화두를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나’의 정체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다. 어떤 학자들은 이 ‘나’를 아담을 지칭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R. N. Longenecker, *Paul, Apostle of Liberty*, 88-95; E. Käsemann, *Commentary on Romans*, 196-197; J. D. G. Dunn, *Romans 1-8*, 378-386; G. Theissen, *Psychological Aspect of Pauline Theology* (Philadelphia: Fortress, 1987), 202-208; J. A. Ziesler, “The Role of the Tenth Commandment in Romans 7,” *JSNT* 33 (1988), 45; Neil Elliott, *The Rhetoric of Romans*, *JSNTSup* 4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0), 246-250; M. A. Seifrid, *Justification by Faith*, *NovTSup* 68 (Leiden: Brill, 1992), 149; P. Stuhlmacher, *Paul’s Letter to the Romans*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4), 106-107; M. J. Gorman, *Apostle of the Crucified Lord* (Grand Rapids: Eerdmans, 2004), 372; H. Lichtenberger, *Das Ich Adams und das Ich der Menschheit*, *WUNT* 164 (Tübingen: Mohr Siebeck, 2004), 107-187; Ben Witherington, *Paul’s Letter to the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2004), 184 등등], 다른 학자들은 이스라엘(D. J. Moo, “Israel and Paul in Romans 7:1-12,” *NTS* 32 (1986), 124-125; D. J. Moo, *The Epistle to the Romans*, 429-430; J.

(롬 7:12) 죄를 지적해 주는 긍정적인 영역이 있지만, 율법은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없다. 오히려 율법은 죄의 세력에 이용당해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도구가 되었고, 그 결과 육신을 가진 인간은 율법을 통한 죄의 지배 아래 더욱 신음하게 되었다. 이 옛 영역 안에서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것뿐이다(롬 7:24-25). 하지만 새 영역 안에서의 상황(롬 8:1-39)은 아주 다르다. 신자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예수의 희생으로 속함 받을 수 있게 되고(롬 8:3-4), 옛 영역의 지배 세력인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새 영역으로 옮겨진다. 또한 새 영역 안에서는 율법이 아닌 성령이 새로운 다스림의 원리와 도우미로 등장한

---

Lambrecht, *The Wretched "I" and Its Liberation*, LTPM 14 (Louvain: Peters/Grand Rapids: Eerdmans, 1992), 63-64; J. A. Fitzmyer, *Romans*, 464; T. R. Schreiner, *Romans*, 361; G. W. Burnett, *Paul & the Salvation of the Individual*, BIS 57 (Leiden: Brill, 2001), 195-197; P. F. Esler, *Conflict and Identity in Roma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3), 234-236; R. Jewett, *Romans* (Minneapolis: Fortress, 2007) 442 등1, 혹은 회심 이전의 바울을 지칭하는 것이라고(W. D. Davies, *Paul and Rabbinic Judaism* (London: SPCK, 1965), 24-27; C. K Barrett, *A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HNTC (San Francisco: Harper & Row, 1957), 143-144; F. F. Bruce, *Romans*, 147-149 등등)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필자는 이에 대해 이 '나'는 바울의 경험이 반영된 수사학적 '나'이고,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험을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보다 자세한 논증은 Jae Hyun Lee, *Paul's Gospel in Romans: A Discourse Analysis of Rom 1:16-8:39*, 346-352를 보라.

그리고 두 번째의 논쟁점은 '나'의 상태가 회심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대한 논란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로마서 7:7-25는 회심 이전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주장한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논증 방식의 일관성 때문이다. 바울은 로마서 6:1-7:6까지 일관성 있는 문답식 대화법을 통해서 자신의 논지를 이끌어 가는데, 이 문답식 대화법의 시작은 바로 앞 문단의 마지막 내용을 토대로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7:7은 바로 앞의 부분(롬 7:5-6)에 나오는 옛 영역과 새 영역의 대조와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히 단어의 연결점이 옛 영역을 말하는 로마서 7:5과 잇닿아 있다. 그러므로 로마서 7:7-25의 내용은 옛 영역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로마서 8:1은 7:6의 내용과 연결되는 점에서 로마서 7:7-25의 반전으로 새 영역의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Jae Hyun Lee, *Paul's Gospel in Romans: A Discourse Analysis of Rom 1:16-8:39*, 363-367).

다. 이 성령의 도움으로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롬 8:15-16)과 구원의 미래적 상황까지 확실하게 보증 받는다(롬 8:18-30).

결론적으로 수사학적 대조는 두 영역의 상태를 설명하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며, 이 대조는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적 대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독특한 유비들(세례, 노예 제도, 결혼)로 옛 영역과 새 영역의 대조를 더욱 분명하게 해주고 있다.

## ② 생동감 있는 문답식 대화법

바울이 보여주는 문답식 대화법은 인위적으로 만든 대화 상대자의 어리석은 질문으로 시작되는데,<sup>18)</sup> 이 질문은 바로 앞 단락 마지막 문장의 내용을 끌어와서 만든 것이다. 바울은 대화 상대자의 어리석은 질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메 게노이토’)로 반박하고, 곧이어 독자와 공유하는 일반적 원리를 “알지 못하느냐”[‘옥 오이다테’(οὐκ οἴδατε)]나 “알지 못하느냐”[‘아그노에이테’(ἀγνοεῖτε)]의 질문 형식으로 확인시킨다(롬 6:3, 16; 참조, 7:1). 이 공유된 원리는 각 단락 주제에 대한 바울

18) 때로 문답식 대화법에 나오는 바울의 대화 상대자의 정체를 규명하는 일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다. 왜냐하면 대화 상대자는 바울이 가상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때때로 이 대화 상대자의 정체 규명으로 당시 상황과 초대 교회의 모습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는 신빙성이 없을 수 있다. 오히려 바울의 문답식 대화법을 접근하는 올바른 방법은 바울 자신이 인위적인 대화 상대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논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일 것이다. 바울이 사용한 문답식 대화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연구는 A. J. Malherbe, “ME GENOITO in the Diatribe and Paul,” *Paul and the Popular Philosophers* (Minneapolis: Fortress, 1989), 25-33; S. K. Stowers, *The Diatribe and Paul's Letter to the Romans*, SBLDS 57 (Chico: Scholars Press, 1981), 19-184; S. E. Porter, “The Argument of Romans 5: Can a Rhetorical Question Make a Difference?” *JBL* 110 (1991), 655-677; S. E. Porter, “Diatribe,” C. A. Evans and S. E. Porter, eds., *Dictionary of New Testament Background*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0), 296-298; Changwon Song, *Reading Romans as a Diatribe*, StBL 59 (New York: Peter Lang, 2004), 94를 보라.

논증의 청사진 역할을 하는데, 바울은 이 공유된 원리의 내용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로마서 5:20의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의 내용은 로마서 6:1에서 바울의 대화 상대자의 질문 주제가 되고(“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 6:1-14의 전체 주제의 시발점이 된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6:14의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의 내용은 로마서 6:15에서 어리석은 질문의 주제로 등장한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여기서 언급된 신자가 법 아래 있는 않다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의 두 가지 내용을 각각 로마서 7:1-6과<sup>19)</sup> 로마서 6:16-23에서 다룬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7:5-6절에서 언급된 옛 영역(롬 7:5)과 새 영역(롬 7:6)의 대조는 로마서 7:7의 어리석은 질문으로 시작되는 로마서 7:7-25(옛 영역)과 로마서 8:1-39(새 영역)에서 각각 다루어진다. 그러므로 두 영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활발한 문답식 대화법은 독자들이 참여할 기회를 주어 집중도를

19) 많은 주석가들은 로마서 7:1-6을 6:15-23과 구분되는 독립된 단락으로 여긴다. 하지만 두 가지 이유에서 로마서 7:1-6은 6:15-23과 연결된 부분으로 이해해야 한다. 첫 번째는 로마서 7:1에 나오는 ‘에 아그노에이테’(ἡ ἀγνωσίᾳ)이다. 이것은 바울이 아주 새로운 주제를 제시할 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논지를 전개시키기 위해서 독자와 공유하는 원리를 제시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이 표현은 로마서 7:1-6이 6:15-23과 독립된 새로운 주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닌, 서로 연관성 있는 주제를 제시하고 있는 증거로 봐야 한다. 두 번째 이유는 로마서 6:15-23과 7:1-6 사이의 단어적 연결성이다. 이 두 부분은 삶과 죽음에 관련된 어휘들이나, 존재, 통제와 관련된 것들, 2인칭 복수 형태의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에서 공통적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7:1-6은 6:15절에서 제시된 문제에 대한 두 번째 답변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Don B. Garlington, *Faith, Obedience and Perseverance*, WUNT 79 (Tübingen: Mohr Siebeck, 1994), 116; S. E. Porter, *Idioms of the Greek New Testament*, 299; Don B. Garlington, “A Newer Perspective on Paul: Romans 1-8 through the Eyes of Literary Analysis,” M. Daniel Carroll R., David J. A. Clines, and Philip R. Davies, eds., *The Bible in Human Society*, JSOTSup 200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384-385; Ben Witherington, *Paul’s Letter to the Romans*, 167-178].

높일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의 논지를 이끌어가는 주요한 도구이다.

### ③ 신적 주체들(divine beings)의 역할

두 영역 틀의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과 예수, 성령의 역할 강조이다. 상호 작용의 틀에서처럼 하나님은 신자를 옛 영역에서 새 영역으로 옮기는 주된 주체로 등장한다(예, 롬 8:3). 그리고 하나님은 신자가 순종해야 할 대상으로 언급된다(롬 6:13, 22). 한편 예수는 로마서 5:12-21에서 순종으로 새 영역을 연 사람으로 묘사된다. 로마서 6:1-14에서는 신자가 함께 연합해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할 대상으로 설명되는데, 오직 이 예수와 연합하여 옛 영역에서 새 영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한다(참조, 롬 7:4, 25; 8:1, 3). 성령은 로마서 7:6에서 새 영역을 주관하는 세력으로 짧게 묘사되고, 로마서 8:1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설명된다. 여기서 성령은 새 영역에 있는 신자들의 새로운 상태와 신분의 보증이 되고, 또한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고통당하는 신자들의 삶을 돕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존재로도 묘사된다. 구원의 새 영역과 관련된 이런 세 존재들 중, 바울은 성령과 예수의 역할에 상대적으로 집중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특별히 새 영역으로 옮겨지는 구원 과정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예수와 성령은 중심 역할을 한다고 묘사한다. 이것은 인간과 상호 작용하는 하나님과 구원 계획의 중심에서 있는 예수에 초점 맞추었던 상호 작용의 설명적 틀과는 차이를 보인다.

결론적으로 두 영역의 설명적 틀은 상호 작용의 틀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중요한 주체들(예, 율법, 죄, 은혜, 옛 패러다임과 새 패러다임 속의 인간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설명한다. 바울은 일련의 수사학적 대조로 두 영역을 묘사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왕성한 문답식 대화법으로 구원을 설명한다. 이런 두 영역의 설명적 틀에 따르면 구원이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옛 영역에서 은혜와 생명이 지배하는 새 영역으

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옮김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더 나아가서 신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영역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삶의 원리를 얻게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

## 2.2. 로마서 1:16-8:39에 나오는 바울 복음의 중심을 향하여

로마서 1:16-8:39에 나오는 복음의 중심을 찾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울 복음의 전체 개관과 주제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앞서 보았듯이, 바울은 자신의 복음을 상호 작용과 두 영역이라는 설명 틀로 보여준다. 이 두 설명 틀을 따르면, 로마서 1:16-8:39의 주제 흐름은 모든 인간들의 죄악 됨에서 시작된다. 이 죄악 됨은 인간의 행위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간들의 이런 죄악 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반응도 행위적 차원과 인지적 차원을 아우르고 있다고 설명한다(롬 1:18-3:20). 이후 바울은 옛 상호 작용 패러다임과 대비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로마서 3:21-5:11에서 보여 준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행적 주도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간의 상호 작용, 그 결과인 법정적 차원의 칭의와 관계적 차원의 화목을 설명한다. 로마서 5:12-8:39에서 두 영역이라는 설명 틀로 죄와 사망의 옛 영역에서 은혜와 생명의 새 영역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설명한다. 이러한 전체적 주제의 흐름 속에는 바울 복음의 중심 부분을 찾을 만한 단서가 되는 두 개의 중요한 논리 관계가 있다.

그 한 가지는 인간의 상태와 관련된 ‘문제(problem)’와 ‘해결(SOLUTION)’(예를 들어, 정죄와 소외 대 구원)이라는 논리적 연결성이다. 이 논리 관계는 상호 작용의 틀(롬 1:18-5:11)이나 두 영역의 틀(롬 5:12-8:39)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문제의 상황보다는 해결의 상황이 논리적으로 더 중요하며 강조된다. 그렇기에 상호

작용의 틀에서는 인간의 죄로 인한 진노의 상태를 말하는 ‘문제’ 부분(롬 1:18-3:20)보다 구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로마서 3:21-26과 5:1-11이 논리적으로 훨씬 중요한 부분이 된다. 실제적으로 바울은 로마서 3:21-26과 5:1-11을 설명하면서 강조의 여러 요소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sup>20)</sup> 로마서 3:21-26은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부각시켜 설명했고, 로마서 5:1-11에서는 예수의 역할을 많이 강조했다. 이 둘 중, 로마서 5:1-11을 더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로마서 3:21-26은 칭의만 이야기한 반면, 로마서 5:1-11은 칭의와 함께 화목의 내용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3:21-26은 구원의 현재적 차원만 다루지만, 로마서 5:1-11은 현재적 차원과 함께 미래적 구원의 모습(롬 5:9-10)을 함께 보여주어 과거, 현재, 미래에 걸친 인간의 모든 문제 상황을 완전히 해결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로마서 5:1-11은 성령의 역할도 언급하여 로마서 3:21-26보다 더 넓은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바울의 설명에 따르면 로마서 1:18-3:20에 나온 인간의 문제는 로마서 3:21-26에서 보이는 구원의 모습으로 해결되기 시작하고 로마서 5:1-11에 이르러 법적, 관계적인 측면을 포함한 현재적, 미래적 구원으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다.

바울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주제 구조 속에 보이는 두 번째 중요한 논리적 관계는 중심부(HEAD)-설명부(clarification), 일반적인(GENERIC) 것-특별한(specific) 것의 논리 구조이다. 이 논리 관계는 특별히 두 영역의 설명적 틀에서 잘 나타난다. 두 영역에 대한 전체적인 묘사는 로마서 5:12-21에서 아담과 예수의 대조로 보인다. 앞에서 설명한 바울의 문답식 대화법의 특징에 의하면, 로마서 6장부터 나오는 주제들은 모두 다 로마서 5:12-21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으로 로마서 5:12-21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심지어 8장도 로마서 5:12-21의 설명 부분으로 볼 수 있는

20) 로마서 3:21-26과 5:1-11에 나오는 강조 표현들은 Jae Hyun Lee, *Paul's Gospel in Romans: A Discourse Analysis of Rom 1:16-8:39, 227-228, 287-288*을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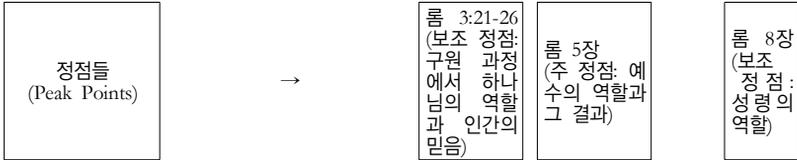
데, 이는 로마서 8장과 대조되는 내용을 지닌 로마서 7:7-25가 로마서 5:12-21부터 시작된 문답식 대화법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옛 영역을 다루는 로마서 7:7-25의 주제도 5:12-21에서 파생된 것이기에, 로마서 7:7-25의 반전인 로마서 8장도 논리적으로 로마서 5:12-21에서 파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두 영역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로마서 5:12-21은 로마서 6-8장의 청사진 같은 역할을 하는 중심부에 해당되고, 나머지 로마서 6-8장은 5:12-21의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설명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로마서 5:12-21은 두 영역의 설명 틀에서 논리적 서열 구조의 윗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심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위의 관찰들에 의하면 로마서 1:16-8:39에 나오는 바울의 복음은 세 개의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로마서 3:21-25; 5장(롬 5:1-11, 12-21); 8:1-39. 이 세 부분은 인간의 죄와 그 결과에 대한 ‘해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 세 부분에서 신자는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인간은 하나님의 선행(先行)적 구원 과정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로, 그 반응의 결과인 구원을 받는 주체로 등장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요소는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는 신적 주체들이다. 바울은 이 세 신적 주체들에 대해서 로마서 3:21-26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을 설명하고, 로마서 5:1-21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로마서 8장은 성령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 세 부분 중 중심 부분은 로마서 5장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은 상호 작용의 설명 틀에서 보이는 구원의 절정 부분(롬 5:1-11)과 두 영역의 설명 틀로 설명되는 구원의 전체적 그림을 보여주는 부분(롬 5:12-21)이 예수의 역할과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1:16-8:39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바울의 복음은 하나의 주된 정점(롬 5장)과 두 개의 보조 정점(롬 3:21-26과 롬 8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구원에 있어 예수의 역할과 그 결과가 바울의 복음의 중심 메시지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이것은

바울은 로마서 1:1-4에서 자신의 복음을 소개하면서 예수를 복음의 핵심으로 소개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로마서 1:16-8:39에 나오는 전체 주제 구조는 <그림 1>같이 정리할 수 있다.

<그림 1>



전체 구분	롬 1:16-17	롬 1:18-3:20	롬 3:21-4:25	롬 5장	롬 6-8장
설명 틀	하나님의 인간의 상호 작용의 틀 (롬 1:16-5:11)			두 영역의 틀 (롬 5:12-8:39)	
	상호 작용의 새 패러다임	상호 작용의 옛 패러다임	상호 작용의 새 패러다임	두 영역의 대조	
논리 관계		문제	해결 롬 3:21-26 (시작)	롬 5:1-11 (정점)	핵심 (롬 5:12-21)   설명 (롬 6-8장)
구원의 두 측면	법정적 측면	심판	칭의	옛 영역: 징죄 새 영역: 칭의	
	관계적 측면	적대 관계	화목과 평화의 관계	옛 영역: 하나님을 대적함(롬 8:7-8) 새 영역: 예수의 신부(참조, 롬 7:4), 양자됨(롬 8:14-17)	
두 차원	시간	현재와 미래의 심판	구원의 두 측면을 포함한 현재와 미래의 구원		구원의 두 측면을 포함한 현재와 미래의 구원
	공간	온 인류 & 피조물	모든 신자(그리고 피조물)		모든 신자(그리고 피조물)

### 3. 나오면서

이상의 연구에서 필자는 로마서 1:6-8:39에 나오는 바울 복음의 구조와 내용, 중심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는 자신의 복음을 설명할 때 상호 작용과 두 영역이라는 두 가지 틀을 사용해서 설명한다. 그런

설명 틀로 바울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여러 상호 작용으로 표현되는 죄와 진노, 믿음과 구원이라는 차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죄와 진노의 영역과 의와 은혜의 영역을 대조하여 상호 작용의 과정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더욱 생생히 묘사한다. 또한 필자는 이런 두 가지 설명 틀로 제시되는 바울의 복음은 예수를 중심으로 한 로마서 5장을 주된 정점으로 하나님과 성령의 역할을 보여준 로마서 3장과 8장을 보조 정점으로 주장한다.

지난 이천 여년 동안 로마서 1:18-8:39에 나오는 바울의 복음은 그의 신학의 핵심으로 여겨져 왔다. 그래서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많은 연구들을 했다. 이런 면에서 필자가 한 언어학적 담화 분석으로 내린 위의 연구와 결론은 바울의 로마서 연구의 마침 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또 위의 연구는 로마서의 나머지 부분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한 로마서 연구라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새로운 접근 방법은 때때로 바울이 의도하고 전하려 했던 복음에 대해 신선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특별히 본문 그 자체에 집중하는 언어학적 담화 분석으로 로마서 연구가 바울의 복음의 주제의 흐름과 중심 부분을 인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며, 계속되는 바울 신학 연구에 자극제가 되기를 희망한다.

### <주요어>

언어학적 담화 분석, 구원 법정적 측면, 관계적 측면, 상호 작용의 설명적 틀, 두 영역의 설명적 틀, 문답식 대화법, 정점

### <key words>

linguistic discourse analysis, salvation, forensic aspect, relational aspect, interactional descriptive framework, two-realm descriptive framework, diatribe, peak

### 참고문헌

- Barrett, C. K., *A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HNTC, San Francisco: Harper & Row, 1957.
- Beker, J. C., *Paul, the Apostle*,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80.
- Bruce, F. F., *Romans*, TNTC, Grand Rapids: Eerdmans, 1983.
- Burnett, Gary W., *Paul & the Salvation of the Individual*, BIS 57, Leiden: Brill, 2001.
- Byrne, B., *Romans*, Sacra Pagina, Collegeville: Liturgical Press, 1996.
- Cranfield, C. E. B., "On the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Question," *On Romans and Other New Testament Essays*, Edinburgh: T. & T. Clark, 1998, 81-97.
- Cranfield, C. E. B.,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Epistle to the Romans*, ICC, Edinburgh: T&T Clark, 1975.
- Davies, W. D., *Paul and Rabbinic Judaism*, London: SPCK, 1965.
- Dodd, C H., *The Epistle of Paul to the Romans*, MNTC, London: Hodder & Stoughton, 1932.
- Dunn, J. D. G., "Once More, ΠΙΣΤΙΣ ΧΡΙΣΤΟΥ," E. E. Johnson and D. M. Hay, eds., *Pauline Theology. Volume IV: Looking Back, Pressing on*, Atlanta: Scholars Press, 1997, 61-81.
- Dunn, J. D. G., *Romans*, WBC, Waco: Word, 1988.
- Earnshaw, J. D., "Reconsidering Paul's Marriage Analogy in Romans 7:1-4," *NTS* 40 (1994), 68-88.
- Esler, Philip F., *Conflict and Identity in Romans*,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3.
- Fitzmyer, J. A., *Romans*, AB, New York: Doubleday, 1993.
- Garlington, Don B., *Faith, Obedience and Perseverance*, WUNT 79, Tübingen: Mohr Siebeck, 1994.
- Gathercole, S.J., *Where Is Boasting?*, Grand Rapids: Eerdmans, 2002.
- Gorman, Michael J., *Apostle of the crucified Lord*, Grand Rapids: Eerdmans, 2004.
- Guerra, A.J., *Romans and the Apologetic Tradition*, SNTSMS 8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Hays, R. B., “ΠΙΣΤΙΣ and Pauline Christology: What Is at Stake?” E. E. Johnson and D. M. Hay, eds., *Pauline Theology, Volume IV: Looking Back, Pressing on*, Atlanta: Scholars Press, 1997, 35-60.
- Hays, R. B., *Echoes of Scripture in the Letters of Pau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9.
- Hooker, M. D., “ΠΙΣΤΙΣ ΧΡΙΣΤΟΥ,” *NTS* 35 (1989), 321-342.
- Howard, G., “On the ‘Faith of Christ’,” *HTR* 60 (1967), 459-465.
- Howard, G., “The ‘Faith of Christ’,” *ExpT* 85 (1973-1974), 212-215.
- Jervis, L. A., *The Purpose of Romans*, JSNTSup 5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1.
- Jewett, R., *Romans*,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2007.
- Johnson, L. T., *Reading Romans*, New York: Crossroad, 1997.
- Käsemann, E., *Commentary on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1980.
- Keck, L. E., “‘Jesus’ in Romans,” *JBL* 108 (1989), 443-460.
- Lambrecht, J., *The Wretched “I” and Its Liberation: Paul in Romans 7 and 8*, LTPM 14, Louvain: Peters/Grand Rapids: Eerdmans, 1992.
- Lee, Jae Hyun, “Against Richard B. Hays’s ‘Faith of Jesus Christ’,” *JGRChJ* 5 (2008), 51-80.
- Lee, Jae Hyun, *Paul’s Gospel in Romans: A Discourse Analysis of Rom 11:16-8:39*, LBS 3, Leiden: Brill, 2010.
- Lichtenberger, H., *Das Ich Adams und das Ich der Menschheit*, WUNT 164, Tübingen: Mohr Siebeck, 2004.
- Longenecker, B. W., “πίστις in Romans 3:25: Neglected Evidence for the ‘Faithfulness of Christ’?” *NTS* 39 (1993), 478-480.
- Longenecker, R. N., *Paul, Apostle of Libert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76 (1964).
- Louw, J. P. and E. A. Nid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sed on Semantic Domains*, New York: United Bible Societies, 1988.
- Malherbe, A. J., “ME GENOITO in the Diatribe and Paul,” *HTR* (1980), 231-240.
- Marshall, I. H., *New Testament Theology*,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4.

- Martin, R. P., "Center of Paul's Theology," G. F. Hawthorne, R. P. Martin, and D. G. Reid, eds., *Dictionary of Paul and His Letters*,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1993, 92-95.
- Matlock, R. B., "Detheologizing the ΠΙΣΤΙΣ ΧΡΙΣΤΟΥ Debate: Cautionary Remarks from a Lexical Semantic Perspective," *NovT* 42 (2000), 1-23.
- McDonald, L. M. and S. E. Porter., *Early Christianity and Its Sacred Literature*, Peabody: Hendrickson, 2000.
- Miller, James C., "The Romans Debate: 1991-2001," *CurBS* 9 (2001), 306-349.
- Moo, D. J., "Israel and Paul in Romans 7-1-12," *NTS* 32 (1986), 122-135.
- Moo, D. J., *The Epistle to the Rom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6.
- Porter, Stanley E., "A Newer Perspective on Paul: Romans 1-8 through the Eyes of Literary Analysis," M. Daniel Carroll R., David J. A. Clines, and Philip R. Davies, eds., *The Bible in Human Society*, JSOTSup 200,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5, 366-392.
- Porter, Stanley E., "Diatribes," C. A. Evans and S. E. Porter, eds., *Dictionary of New Testament Background*,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0, 296-298.
- Porter, Stanley E., "The Argument of Romans 5: Can a Rhetorical Question Make A Difference?" *JBL* 110 (1991), 655-677.
- Porter, Stanley E., "The Rhetorical Scribe: Textual Variants in Romans and Their Possible Rhetorical Purpose," S. E. Porter and D. L. Stamps, eds., *Rhetorical Criticism and the Bible*, JSNTSup 195,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2002, 403-419.
- Porter, Stanley E., *Idioms of Greek New Testament*, BLG 2,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2.
- Räsänen., H., *Paul and the Law*, WUNT 29, Tübingen: Mohr Siebeck, 1983.
- Robinson, D. W., "Faith of Jesus Christ - A New Testament Debate," *RTR* 29 (1970), 71-81.
- Sanday, W. and A. C. Headlam.,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 Epistle to the Romans*, ICC, Edinburgh: T. & T. Clark, 1902.
- Schreiner, T. R., *Interpreting Pauline Epistles*, Grand Rapids: Baker book, 1990.
- Schreiner, T. R., *Paul: Apostle of God's Glory in Christ*, Downers Grove: InterVarsity Press, 2001.
- Schreiner, T. R., *Romans*, BECNT, Grand Rapids: Baker, 1998.
- Seifrid, M. A., *Justification by Faith*, NovSup 68, Leiden: Brill, 1992.
- Snyder, Graydon F., "Major Motifs in the Interpretation of Paul's Letter to the Romans," Sheila E. McGinn, ed., *Celebrating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2004, 42-63.
- Song, Changwon, *Reading Romans as a Diatribe*, StBL 59, New York: Peter Lang, 2004.
- Stuhlmacher, P., *Paul's letter to the Romans*,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4.
- Taylor, G. M., "The Function of πίστις Χριστοῦ in Galatians," *JBL* 85 (1966), 58-76.
- Theissen, G., *Psychological Aspect of Pauline Theology*, Philadelphia: Fortress, 1987.
- Tobin, T. H., *Paul's Rhetoric in Its Contexts*, Peabody: Hendrickson Publishers, 2004.
- Williams, S. K., "Again Pistis Christou," *CBQ* 49 (1987), 431-447.
- Witherington, Ben., *Paul's Letter to the Romans*, Grand Rapids: Eerdmans, 2004.
- Ziesler, J. A., "The Role of Tenth Commandment in Romans 7," *JSNT* 33 (1988), 41-56.

<초록>

##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 복음의 중심을 향하여

-로마서 1:16-8:39 담화 분석-

이재현

(침례신학대학교/대학원 강사)

본 연구는 로마서 1:16-8:39에 나오는 바울 복음에 대한 언어학적 담화 분석이다. 연구의 주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다. 로마서 1:16-8:39에서 바울 사상의 중심 부분은 어디인가? 중심 부분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중심 부분을 규명할 수 있는가? 바울의 논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언어학적 담화 분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로마서 1:16-8:39에 나오는 바울의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상호 작용의 틀과 두 영역 틀을 통해서 설명된다. 로마서 1:18-5:11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기본적 틀로 등장하는 상호 작용의 틀은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거나 구원 과정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시작과 그에 대한 인간의 거절이나 믿음의 반응이 있고,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와 구원이라는 결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두 영역의 틀은 죄의 옛 영역과 구원과 은혜의 새 영역의 대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로마서 5:12-8:39의 기본 틀로 나온다. 이런 두 설명적 틀 속에 나타나는 바울 논지들의 논리적 관계성 고찰을 통해서 필자는 바울의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수의 역할과 그 결과를 논하는 중심부(롬 5장)와 하나님과 성령의 역할을 설명하는 두 개의 보조 중심부(롬 3:21-26과 롬 8장)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Abstract>

## **Toward a Peak(s) of Paul's Gospel in Romans: A Discourse Analysis of Rom 1:16-8:39**

Part-Time Lecturer, Jae Hyun Lee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Seminary)

This study is a linguistic discourse analysis of Paul's gospels in Rom 1:16-8:39. The major objective is to answer the following three questions: Where is Paul's central point(s) or peak(s) in Rom 1:16-8:39? What is the content of the peak point(s)? And how can one identify the central point(s)? In order to investigate Paul's arguments, this study suggests a discourse analytic methodology. After examining the topical flow and its logical relationship in Rom 1:16-8:39 based on this methodology, this study concludes that Paul's arguments in Rom 1:16-8:39 are delivered by two descriptive frameworks: (1) interactive framework between God and humans; and (2) two-realm framework. As a dominant framework in Rom 1:16-5:11, the interactive framework shows a process that God begins the interaction by revealing his divine attribute or salvific process, and humans respond to it either by sinful rejection or faith. According to the nature of human response, God also renders either wrath and judgment or salvation to humans. The two-realm framework has a contrast between old sinful realm and new realm of grace and salvation, and it appears as the fundamental framework in Rom 5:12-8:39. According to the logical relationship of Paul's argument within these frameworks, I insist that his gospel about

God's salvation has one peak point(Romans 5), which shows the central role of Jesus and its result in God's salvation, and two sub-peaks(Rom 3:21-26 and Romans 8), which elucidate salvation with the stress on the role of God and the Holy Spirit.

